

본 커뮤니티의 모든 문서를 정독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총괄진 측에서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세계관	공지사항	신청서	시스템	질문답변
-----	------	-----	-----	------

1. 세계관

최초의 능력자는 1800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총과 칼을 든 인간은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졌던 그 능력자는 인간의 무기로 상대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미국 뿐만 아닌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세계사에 기록된 이 사건은 '첫 번째 월드 패닉' 이라 불린다.

정부는 그의 머리를 가져오는 인간에게는 매우 큰 포상금을 내린다고 선포했으며 그로부터 몇 개월이 흐르게 되었다. 경찰서를 방문한 어떤 인물의 손에 피로 범벅된 현상수배범의 머리가 들려있었다. 그로 인해 두 번째 월드 패닉이 찾아왔다.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능력자는 단 한 명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능력을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돌연변이 인류인 이능력자를 소탕하기 위해 화약무기를 개발했으며 이능력자를 배척해야한다는 주장이 점차 커지기 시작할 무렵, 역으로 그들을 이용해 큰 부를 축적하고자 한 눈치 빠른 상류층은 그들의 인권을 내세우면서 후원을 하고 지지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부르주아 덕분에 목숨을 부지하게 된 소수의 이능력자 대부분은 '정부의 개'라고 불리는 정예 요원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

그에 반항하는 소수의 이능력자도 있었다. 안전이라는 목적으로 부르주아의 개가 되기를 선택한 동류를 경멸한 그들은 자유를 원했다. 어느 시대에도 존재했던 계급과 억압에서 벗어날 선택을 주장한 이들은 안락한 목줄에서 벗어나 어둠에 숨어들었으며 스스로 보호할 조직을 건립했다.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난 현재, 20XX년.

이능력자에 대한 인식은 많이 개선되었으나 그들은 여전히 두 갈래로 나뉜 상태이며 현재 전 세계는 끊임없는 테러와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고 있다. 먹어도 배부름을 모르는 자들의 횡포와 욕심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끔찍한 인간의 밑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과 이능력자들은 현 상황에 끝없는 공포와 극한의 쾌감, 그리고 인류에 대한 슬픔이 담긴 절망과 양심 속 죄악감을 모두 느끼고 있었다.

20XX. 00.00일

현재 GX-0.75라는 특별한 자원 물질을 발견했는데, 대지 곳곳에 매우 극소량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이 에너지원의 소유만으로 빈부가 크게 갈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임을 깨닫자 전 세계는 다시금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에너지원의 채굴권을 양도 요구하는 정부의 잔혹한 명령과 우리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그은 너희들은 이 곳에 멋대로 침범할 수 없다며 짐승과도 같은 거친 외침이 맞부딪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테러로 죄없는 시민을 대피 시키거나 숨길 여유없이 이능력의 폭발로 많은 희생자가 나오기 시작했다.

비명과 절규가 낭자하는 거리에도 싸움은 멈출 기색이 없었다. 군대와 무기, 이능력으로 주변 도시의 피해 규모가 견잡을 수 없이 매우 빠르고 넓게 퍼져 나가기 시작했을 때 즈음—

먹구름이 가득했던 검은 하늘에서 거대한 빛내림이 검붉은 폐허 속 이능력자들을 비쳤다.



굉음과 비명이 난사하던 시가지는 순식간에 고요해졌으며 시각을 온전히 마비시키는 무한의 빛을 목격한 이들은 순식간에 정신을 잃고 말았다.

.
.
.
.
.
.

거대한 빛에 휘말렸던 이능력자는 어느 장소에서 눈을 떴다.

가장 먼저 눈을 뜬 이는 방어 태세를 갖추며 빠르게 몸을 움직였으나 주변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조용하고 매우 차갑고 사늘하며 무거운 공기만이 가득했다.

서늘함을 이루는 하얗고 짙은 얼음 안개 너머로 검게 드러나는 건물이 희끗하게 보여 안심하는 것도 잠시, 이 곳이 어딘지 밝혀낼 수 없어 빠르게 흥분을 가라앉히고 동료들을 잠에서 깨우며 무기를 쥔 채 목직힌 긴장에 돌입했다.

곧 정신을 차린 이들 모두가 큰 부상없이 테러 현장에서의 마지막 모습을 그대로 전이해 온 것임을 깨닫자 다들 말을 삼켰다. 순간 허공을 가로지르는 바람 외 외부에서도 숨막히는 적막감이 이 곳을 에워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 외 다른 사람들은 어딴거지?”

인류의 돌연변이이자 선택받은 인간이라고 불리는 그들의 예리한 감각은 눈을 뜬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본능이라는 날을 버리고 있다. 이 곳은 위험한 곳이라고. 본능적으로 두려움과 호기심이 밀려드는 장소에서 그들은 임시 평화 휴전을 맺었다.

“일단 돌아가자.”

원래 있던 장소로 되돌아가기 위해 그들은 이 곳에서 탈출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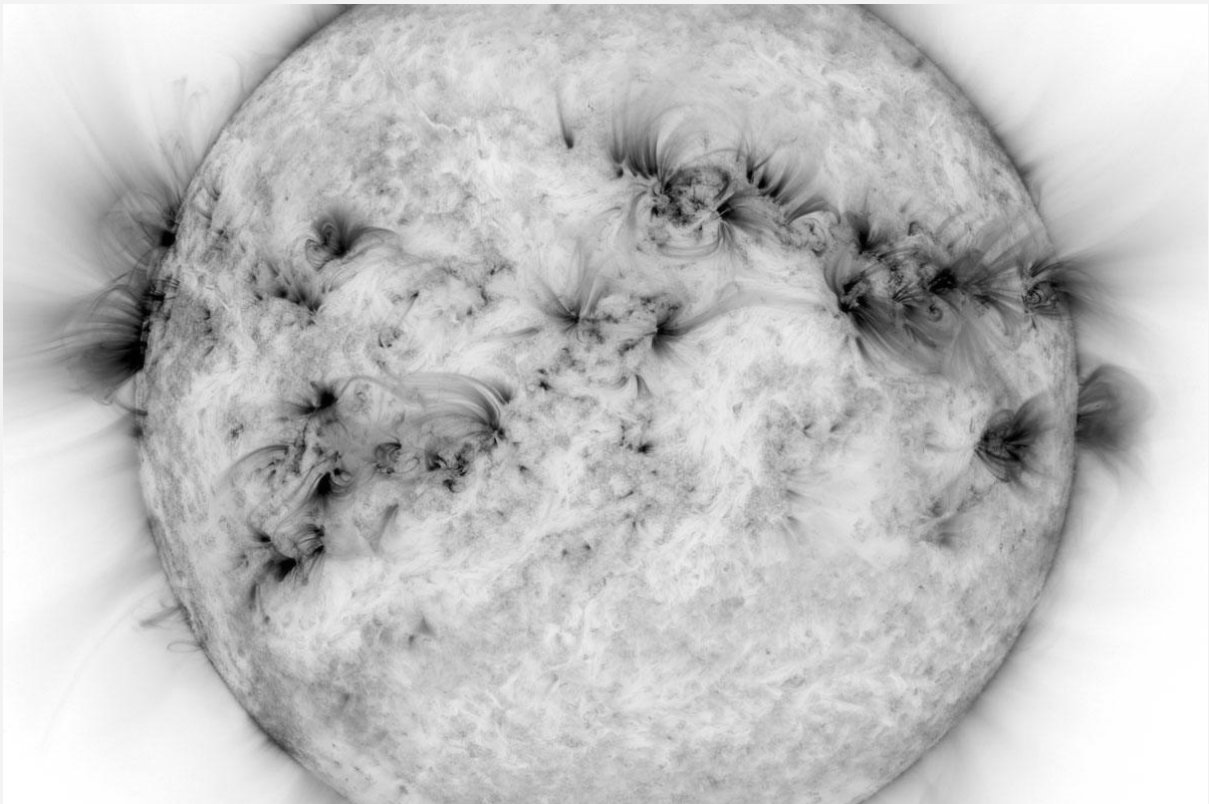
2. 이능력에 대하여

- 이능력자는 지구 사는 전체 인구 중 2%를 차지할 정도로 극소수입니다.
 - 이능력을 제어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 테러가 발생한 미국의 ※☆@주는 전 세계에서 이능력자 대우가 가장 좋아 멀리서 이민을 오거나 이사를 온 이능력자들이 많아 '경이로운 도시'로 불리고 있습니다.
 - 유전과 상관없이 극소수의 확률로 선천적으로 지니고 태어납니다.
 - 이능력 발현과 능력에 대한 컨트롤 시기는 인간마다 다릅니다.
 - 이능력을 컨트롤 하는 것은 개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연습, 선천적 재능, 주변 환경으로부터 영향 등)
 - 1800년 이전에 이능력자가 존재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 정부 요원으로 일하는 이능력자는 히어로 / 정부에 소속되지 않고 외부 연합에 속한 이능력자는 빌런이라고 부릅니다.
 - 히어로와 빌런은 각 조직의 제복이 없습니다. (소속용 배지 혹은 사원증은 존재함)
 - 동물로 변신하는 이능력자는 존재하나 능력 발동 전 모습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 이능력의 능력 규모, 기타 영향을 미치는 범위에 따라 리스크가 정비례 합니다.
 - 이능력 리스크가 없는 이능력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능력자는 리스크가 최대치로 누적될 경우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 이능력자가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으로 다니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판명됩니다.
 - 타임머신 능력을 지닌 이능력자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능력자는 현대인 대비 수명이 짧습니다. 현재 발견된 이능력자의 최대 수명이 65세로 확인되었습니다.
-

3. 각 진영에 대하여

[히어로]

“가장 높고 밝은 곳은 언제나 빛이 닿으니-”



- 히어로는 정부 기관 <다비누스>에서 만 18세부터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정부 기관에서 이능력을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훈련 받고, 정기급+성과급으로 측정된 월급을 2주마다 지급 받습니다. 현장직이 가장 많이 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이능력 등급은 나뉘어 지지 않습니다.
- 딜러 / 힐러 계열로 나뉩니다. 그 외 서포터 계열 이능력이 극소수 존재합니다.
- 정부 소속 요원이므로 겸업이 불가능 합니다.

[빌런]

“인간이라면 존재하는 가장 깊고 어두운 마음.”



- 빌런은 <똥팔라가> 라는 조직 소속으로 주로 활동합니다.
- 해당 연합에서 나눠주는 의뢰를 성공 or 실패(보수)+성과급+개인이 운영하는 사업 등이나 부업 등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얻으므로 개인별 벌이 차이가 큼니다.
- 이능력 등급은 나뉘어 지지 않습니다.
- 딜러 / 힐러 계열로 나뉩니다. 그 외 서포터 계열 이능력이 극소수 존재합니다.